

못말리는 한국인의 '벤츠 사랑'... E·S클래스 판매량 독일 제쳐

고급 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벤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한국이 벤츠의 고향 독일 뿐 아니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G3(3대 주요국가)' 지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 한 대 가격이 최소 3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등 슈퍼카를 찾는 한국 소비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한국 시장 판매량은 3만7723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54%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벤츠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한국의 순위도 지난해 상반기 8위에서 5위로 1년 만에 세 계단이나 뛰었다.

한국인은 올해 들어 세계에서 중국,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벤츠를 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벤츠 구매량이 많았던 이탈리아(6위), 일본(7위), 프랑스(8위)를 모두 제쳤다.

특히 고가 모델인 E클래스와 S클래스의 경우 한국 판매량이 독일 본토보다도 많은 정도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으로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4233억 달러로 세계 4위, 1인당 GDP는 4만1244달러로 19위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GDP(1조4981억 달러)와 1인당 GDP(2만9115 달러)는 각각 세계 12위, 30위 정도로 절대·상대적 경제규모에서 독일에 모두 열세다.

하지만 상반기 벤츠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 미국 다음 세 번째로 많은 1만8453대의 E클래스를 팔았다. 지난해 상반기 순위(5위)보다 두 계단 높아졌고, 독일·영국·일본이 4~6위로 우리나라

중국·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

상반기 3만7723대...1년새 54%↑

'슈퍼카' 페라리 판매도 아·태 4위

뒤를 이었다.

벤츠 E클래스는 가격이 최저 6190만원(E200), 최고 1억1200만원(메르세데스-AMG E43 4MATIC)에 이르는 중대형 세단인데도, 한국에서는 한 달에 무려 3076대로 날개 돌친 듯 팔려나갔다.

모델별 최저 가격이 1억원대 중반에 이르는 대형 세단 벤츠 S클래스도 같은 기간 한국에서 약 2500대나 판매됐다. 역시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이 밖에 8000만~1억4000만원대 스포츠 세단 '벤츠 CLS' 모델 시장에서도 한국은 중국, 미국과 함께 3대 '큰 손'이고, 한국인은 준중형 세단 C클래스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샀다.

세계 최대 벤츠 딜러사 '레이싱 홀'의 앤드류 바샤 시장은 이런 한국인의 벤츠 사랑에 대해 "한국 고급 차 소비자들은 수준 높고 세련되며, 기대 수준 또한 매우 높다"며 이런 눈높이에 벤츠의 품질과 인지도 등이 잘 맞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한국 딜러와 기술자들의 뛰어난 역량도 벤츠 인기의 배경으로 꼽았다.

'슈퍼카' 브랜드들도 한국 고급 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벤츠 E클래스 모델

예를 들어 이탈리아 페라리의 경우 불과 5년 전 약 50대에 불과했던 연간 한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 두 배 이상인 120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페라리 모델의 국내 최저 판매가는 2억9000만원대(캘리포니아 T)에 이른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한국은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위에 올랐다.

200대 안팎의 호주, UAE 판매량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페라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소득·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올로(한 번뿐인 인생)' 성향도 강해지면서 자신의 드림 카를 과감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3일(현지시각) 말라위에 건립한 보건센터의 지역사회 이양을 마치고 강원화(왼쪽부터) 기아대책 말라위 지부장, 데이비슨(Davison) 현지 협력NGO(Africa Child Mission) 부이사장, 진대형 기아차 CSR경영팀 차장, 심와카(Simwaka) 살리마 도지사, 제푸탈라(Jeputala) 현지 지역단체(Mpatsa CCAP)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탄자니아 중등학교·말라위 보건센터 지역사회 이양

글로벌 사회공헌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 첫 결실

아프리카 빈곤지역에 학교나 보건센터 등을 지어줘 자립하도록 돕는 기아자동차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었다.

기아차는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에 따라 2012년 탄자니아 나카상웨에 건립한 중등학교와 말라위 살리마에 세운 보건센터 등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이양했다고 7일 밝혔다.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빈곤지역의 복지와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립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은 5년 이내에 지역사회에 이양돼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탄자니아, 말라위를 비롯해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7개국 10개 지역에서 중등학교, 보건센터, 자동차정비훈련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5년간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기아대책과 협력해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지역주민 복지 제공, 일자리 창출 등 두 지역의 온전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 모델을 만들고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탄자니아 나카상웨에는 봉고트럭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 학교의 유니폼을 제작해 납품하는 의류 공장인 '키파토 하우스'를 설립했다.

말라위 살리마에는 기본 의료설비를 갖춘 '그린 라이트 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옥수수 농가에 비료를 빌려줘 주민 소득을 늘리는 '비료 은행'을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기아차 임직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말라위 살리마와 린롱웨에서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국내외 법인에서 자원한 임직원 24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여름 휴가 대신 봉사 에 나섰다고 기아차는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입차 공급부족 7월 판매 26% 줄어

벤츠 5472대 1위

지난 7월 수입차 시장은 전반적 '공급 부족' 현상으로 20% 이상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일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의 영향으로 가솔린차가 디젤차보다 많이 팔렸고, 하이브리드(연료+전기모터) 모델과 일본 브랜드의 호조도 두드러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1만7628대로 6월보다 25.8% 줄었다. 다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12.1% 많았다.

협회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

라가지 못하는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며 "여기에 여름 휴가철 영업 공백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5472대를 팔아 지난달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BMW(3188대), 렉서스(1091대), 토요타(1407대), 포드(1033대), 혼다(1001대), 미니(794대), 랜드로버(786대), 볼보(624대), 닛산(593대) 순이었다.

하지만 판매량 측면에서는 1.2위 벤츠와 BMW 모두 각각 지난달보다 30%, 42%나 급감했다. 연료별로 나눠보면 가솔린차가 7888대(44.7%)로 가장 많았고, 디젤(7744대·43.9%), 하이브리드(1983

대·11.2%), 전기(13대·0.1%)가 뒤를 이었다.

디젤차 인기 추락 현상과 함께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6개월 만에 수입차 시장에서 가솔린차가 디젤보다 많이 팔린 것이다.

국가별로는 독일 등 유럽 브랜드의 비중이 67.6%로 여전히 선두였지만, 일본의 점유율도 22.5%까지 높아졌다. 미국 브랜드의 경우 수입차 10대 중 1대꼴이 었다.

7월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 E클래스를 제치고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 ES300h(660대)가 차지했다. 벤츠 E 220d 4MATIC(614대), 포드 익스플로러(Explorer) 2.3(603대)는 2, 3위에 올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포드 제치고 美 하이브리드차 판매 2위

미국 하이브리드(HEV)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2년여 만에 포드를 꺾고 월간 판매순위 2위에 올랐다.

7일 미국 친환경차 전문매체 하이브리드카즈닷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총 4976대의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월(4566대) 대비 9.0% 증가한 것이며 작년 같은 기간(2069대)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총 1만5천663대를 판매한 도요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가 포드를 제치고 월간 판매 2위를 기록한 것은 2015년 4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포드는 간판 모델인 퓨전 하이브리드의 부진으로 인해 전월(6663대)보다 절반 이상 급감한 3186대를 팔아 3위로 밀려났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은 17.1%로 전월(15.2%)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도요타는 6월 53.2%에서 7월 61.3%로 8.1%포인트 올랐고, 포드는 23.6%에서

12.5%로 무려 11.1%포인트 하락했다. 현대·기아차가 좋은 성적을 거둔 데 일동 공신은 기아차 니로다.

니로는 지난달 총 2763대가 팔리며 현대·기아차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출시 첫 달인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4위를 유지했던 판매순위는 이번엔 3위(9.5%)로 상승했다.

니로보다 많이 팔린 차는 토요타 프리우스(6034대·20.8%)와 토요타 라브4(4695대·16.2%)였다.

3월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은 지난달 1209대가 판매돼 4.2%의 점유율로 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